



KORUS FTA 추가협상 외통수였나?

235년 전 아담 스미스(A. Smith)와 후계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D. Ricardo)는 국제무역을 발생시키는 이유를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를테면 두 나라 간 상품 생산에 생산성의 격차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발생할 때 국제무역을 통해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늘날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의 담론이 일상생활에서 회자되면서 국제무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지만 무역 자유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로 구분하면 견해가 상반된다. 국제무역에 가치판단을 도입시키기 때문이다. 즉 무역을 하지 않을 때보다 무역을 통해 더 큰 이익(gains from trade)이 발생하느냐의 본질적인 측면보다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비해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익을 빼앗긴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글 김태항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국제무역의 자유와 규제의 줄타기

무역 자유주의와 무역 보호주의의 핵심적인 공통분모는 자국의 이익 증대이다. ‘자유’의 의미는 모두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무역을 제한할 때(무역 보호주의)가 무역을 자유롭게 할 경우보다 자국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무역 자유주의는 더 이상 유용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무역 자체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의 상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즉 수출은 자유롭게 수입(輸入)은 규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일방적인 생각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무역 자유주의나 무역 보호주의 모두에 함정은 있다. 관건은 국가 경제 발전에 국제무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규제화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초에 합의된 한미 FTA(KORUS Free Trade Agreement) 추가협상 결과를 생각해 보자. ‘굴복협상’이었다는 주장과 ‘최선의 방어’였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 간 통상협상에서 협상 결과가 시행되기도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추가 또는 재협상의 사례를 남긴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이유로 협상의 결과가 발효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어 있는 것도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KORUS FTA는 2007년 6월 30일에 본 협상이 타결된 후 무려 3년 5개월 동안이나 발효되지 못한 장기기간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국내총생산의 증가(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무역 증대 등의 FTA 추진효과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로서는 2008년 상반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촛불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된 까닭에 2009년 4월에서야 국회 상임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KORUS FTA 비준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 중이다. 미국으로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구조조정

의 여파를 감당해야 했으며,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출범과 민주당 주도의 의회 구조로 비준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KORUS FTA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취임 후 미국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KORUS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문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자동차 업계와 이에 편승한 의회 의원들의 강력하고 집요한 요구였다. 2009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45만1천 대인 반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6천6백대 수준이었다. 미국 현

지에서 생산한 현대차와 기아차 21만 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미국 자동차 구매 물량은 미국의 한국 자동차 구매량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사실 미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의회와 행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할 명분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 약화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6%에 도달했다. 유럽산과 일본산 자동차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감소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개방 정도가 낮거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배타적으로 수입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자동차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 소비자의 선호도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로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포드나 GM의 시장 점유율이 저하하고 심각한 경영 악화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 이러한 견해를 반증한다.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추가협상

이번 KORUS FTA 추가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한 대가로 돼지고기와 의약품 수입에서 유리한 내용을 추가했다. 협정이 발효된 후 실질적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본 협상에 비하여 이번 추가협상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한 것은 분명하다. 한 가지 간단한 예시로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 50만 대, 단가 2만 달러를 가정해 보자.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2.5% 즉시 철폐가 4년간 유예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기대했던 4년 간 총 10억달러(50만대x2만달러x0.025x4년)의 가격 인하 요인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미국 개인 소비자가 500달러 가격 인하가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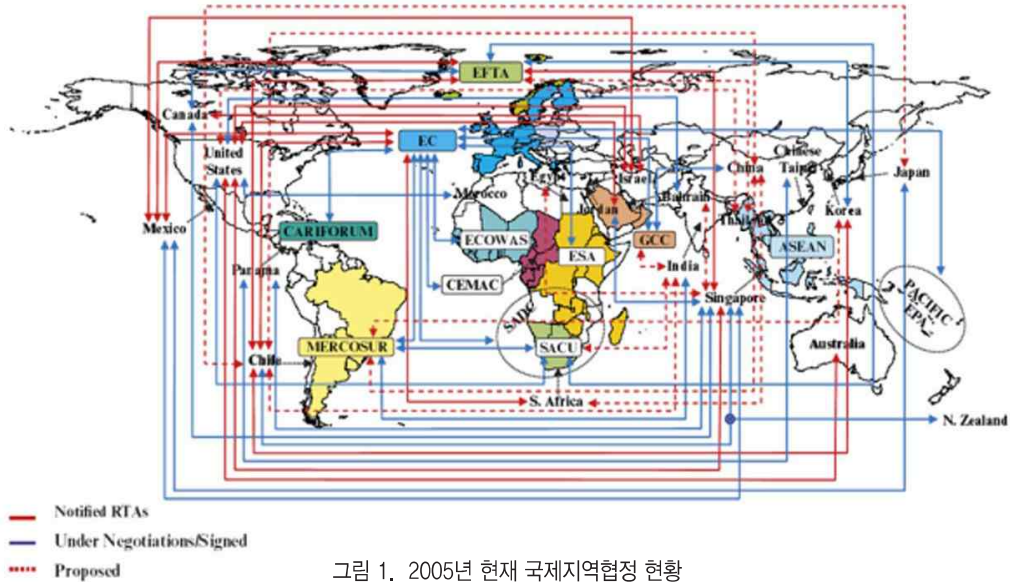


그림 1. 2005년 현재 국제지역협정 현황

동차 구매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격 인하의 마케팅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자동차 업계와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한편으로 2007년 본 협상 결과와 대비한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 지난 3년 5개월 동안처럼 FTA 발효 지체 또는 무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한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한 가지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는 FTA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본 협상에 버금가는 추가협상의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추가협상을 선택했다. 최선의 방어 전략이 추가협상의 주안점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과제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세계 통상체제에 중대한 파급영향을 끼칠 KORUS FTA가, 올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와 더불어 발효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계획하고 기대했던 협상 결과를 어떻게 경영해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하나님의 경영(잠 16:1,9)에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양한 수준으로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체제에서 지역주의가 거미줄처럼 확산되고 있으므로(그림 1 참조) 무수한 계획이나 정책들은 상호 협조적일 수도 있지만 상충되어 더 큰 갈등을 빚어낼 수도 있다. 단 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협상 구조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 결과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힘써 일하심(役事)은 정태적이지 아니라 동태적 관점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가 최선의 공동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결과를 단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향후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실현 결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여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경쟁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영 체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안일함과 죄성에 근거한 무기력함과 게으름은 최우선적인 경계 대상이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경영자는 하나님이지

지만 삶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은 우리의 몫이었다. 지나친 경쟁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원초적으로 땅의 가치덤불과 엉겅퀴와 투쟁하며 땀을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력 부여 은총을 부인하는 이방인과 그 문화를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선의의 활동 또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구조는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체제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도 이 가운데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FTA는 쌍방이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웃 사랑 명령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FTA가 당사국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또는 국내 특정 산업부문의 혜택 증대에 집중된다면 결과적으로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FTA는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정책의 수혜자와 소외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내에서는 FTA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산업 구조 조정과 정책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FTA의 이익을 보다 많은 나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도록 FTA의 성과 창출과 성과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배타적 지역주의가 개방적 다자주의(多者主義)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우리가 유태인의 선민주의를 비판하는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배타적 특권으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FTA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가변적인 향후 경영성과

KORUS FTA의 최종 관문은 양국 국회(의회)의 비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 서로가 체력을 단련하여 공동의 결실을 어떻게 창출해 나아가느냐이다. 추가협상의 손익계산서는 전리품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가변적이다. 우리나라가 2002년 10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한-칠레 FTA(2004년 4월부터 발효)의 실제 손익계산서의 사례로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로서만 아니라 국가로서도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미래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